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하나님께서 비롯된 봉사

성경: 고전 8:6, 롬 11:36, 1:9, 7:6, 행 13:2, 고후 3:5-6, 골 1:29

I.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곧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 롬 4:17, 11:36, 고전 8:6.

- A.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일하기 위한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단지 말씀하심으로써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실 수 있다 — 시 33:9.
- B.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그분께서 근원 곧 유일한 창시자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기원되고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 엡 4:6, 마 15:13, 롬 11:36, 고전 8:6.
 - 1.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기원자이시고,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창시자이시다 — 창 1:1, 행 13:2, 4.
 - 2.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영적인 일의 기원자이셔야 하며, 그분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봉사의 시작을 통제해야 한다 — 마 7:21-23.

II.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야 한다 — 마 7:21, 빌 2:13, 엡 1:9, 11, 3:2, 7-11.

- A. 참된 봉사는 우리에게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만이 계시의 따른 봉사이다 — 엡 1:17, 3:3-5.
- B. 사람에게 의해 시작되거나 출발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종교적인 활동일 뿐이다 — 갈 1:13-16.
 - 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그분의 봉사나 그분의 일이 아니다.
 - 2. 하나님은 그분에 의해 시작되고 출발한 것만을 그분을 위한 봉사와 일로 여기신다 — 행 13:2, 4.
- C. 우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 D.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의 협력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 고전 3:9, 16:10, 고후 6:1.
 - 1.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무엇도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 2.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의견과 결정과 발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명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3.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의 시작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 — 엡 1:9, 롬 12:1-2.
 5.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한 유일한 선결 조건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말과 의견과 견해와 자아를 멈추는 것이다 — 갈 2:20.
 6.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드리도록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 겔 1:25.
- E.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들의 봉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기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사 6:1-10, 행 9:3-6, 15-16, 26:18.
1.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내적으로 빛 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감히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 고후 1:9, 3:5.
 2. 주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 반드시 명확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께 빛 비춤을 받는 분명한 시점에 이르러야 한다 — 롬 11:36.

III.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에는 봉사의 서로 다른 두 근원이 있다.

- A. 이 두 근원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다 — 고후 3:5.
1. 5절에 나오는 ‘우리 자신’은 6절에 나오는 ‘문자’와 연결되고,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6절에 나오는 ‘영’과 하나이다.
 2. 문자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3. 문자에 의한 봉사가 우리 자신 안에 있고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봉사인 것처럼, 그 영에게서 나온 봉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봉사이다.
- B. 오직 두 종류의 봉사와 함께 두 종류의 근원이 있다. 한 종류의 봉사는 문자에 의한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다른 종류의 봉사는 그 영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 고후 3:5-6.
1.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봉사는 우리 자신을 근원으로 삼고, 문자에 속한 규례와 의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는 하나님 밖에서 또한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우리 자신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2.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봉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할 것을 요구한다 — 요 15:5, 롬 11:36, 고전 8:6.
 - a. 이러한 종류의 봉사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있다 — 엡 1:17, 3:3-5, 골 1:9.
 - b. 이러한 종류의 봉사는 우리에게 영 안에서 영의 감각에 의해 살면서 그 영의 인도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한다 — 롬 8:4.
- C.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봉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 것을 요구한다 — 요일 1:3, 요 15:5, 고전 1:9, 6:17.
1.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매 순간 신선하게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요구된다.
 2.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짐으

로써 수행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 롬 1:9, 7:6.

3.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봉사한다면, 그 봉사가 우리의 열정에 의한 것이든 다른 무언가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
4. 어떤 봉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그 봉사 안에서 하나님과 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 고전 6:17, 요일 2:27-28.
 - a.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 롬 1:9, 7:6.
 - b. 이러한 종류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신 결과로 산출된 활동이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 c.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문제였다 — 골 1:29.
 - (1) 바울은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복종시키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고 하나님으로 점유되며 채워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 엡 3:16-17.
 - (2) 바울은 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강권하였다. 그 힘은 바로 바울 안에 계시면서, 그와 연합되시고 그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였다 — 골 1:29.
- D. 우리의 봉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영(spirit)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운행하시고 지시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 봉사만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봉사이다 — 롬 11:36, 고전 8:6, 행 13:2, 고후 3:5-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봉사의 두 근원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 두 성경 구절은 각각 서로 다른 두 근원을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언급된 두 근원은 '우리'와 '하나님'이고, 6절에서 언급된 두 근원은 '문자'와 '영'이다. 비록 이 두 구절이 네 근원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봉사가 네 근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네 근원은 실지로는 오직 두 근원이다. 첫 두 근원은 후반의 두 근원 안에 체현되어 짝을 이루고 있다. 마치 '우리'가 '문자'와 짝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영'이 하나이다. 마치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지로는 우리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듯이,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반드시 문자에 의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반드시 그 영에 의해 섬겨야 한다. 마치 문자에 따른 봉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는 봉사이자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봉사이듯이, 그 영에 의한 봉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봉사이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봉사이다. 그러므로 오직 두 종류의 봉사와 두 종류의 근원이 있다. 한

종류는 문자에 의한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며, 다른 한 종류는 그 영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우리의 봉사가 첫째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둘째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즉, 만일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혹은 역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외의 다른 셋째 근원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봉사

우리는 우리의 봉사의 두 근원을 세밀히 점검해 볼 시간이 없고 다만 이 둘 중 한 가지—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봉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봉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으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물론 하나님을 위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봉사는 우리 자신을 그 근원으로 취하고 문자적인 규례와 의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의해 수행된다.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독립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봉사는 이와 같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즐거움을 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영에 의해 살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거절하고 영 안에서 영의 느낌에 의해 살고 영의 인도를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오직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봉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필요성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런 종류의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봉사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어 행동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봉사는 그분을 만나고 접촉함으로써 수행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분을 접촉하면서 그분을 섬긴다. 우리는 그분과 떨어져 설 수 없고 그분과의 접촉을 놓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그분 밖에서 우리의 열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써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의 봉사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어떤 영적 가치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가치가 있는 봉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여 상호 교통을 갖는 봉사여야 한다. 한편으로 안에서는 그분께서 운행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밖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심으로써 산출된 하나의 활동이다. 밖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만, 안에서는 그분이 운행하신다.

앤드루 머리(Andrew Murray)는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깊고도 요점을 찌른다. 무엇이 기도인가?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우리를 통과할 뿐이다. 참된 영적 기도는 우리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우리 자신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써 수행된다.

다른 모든 종류의 봉사도 마치 기도와 같다. 어떤 종류의 봉사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드러지시는 봉사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봉사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입지도 갖지 못한 채로 그분을 섬길 수는 없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은 다만 하늘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만 하실 수는 없다. 단지 우리가 잠시 그분을 생각한 다음, 그분을 접촉하거나 그분과 연합됨이 없이 즉시 열정적으로 그분을 섬길 수는 없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자신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전혀 없다.

사도는 새 언약 안에서 자신이 수행한 봉사가 자신으로부터 나오거나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봉사는 그 이상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기쁘고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다! 그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굴복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둬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점유되고 충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모든 입지를 얻으시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운행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수고하고 봉사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께 감동 받았으므로 밖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이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충동받지 않았다.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의 속에서 그와 연합하시고 그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였다. 이 봉사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가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지로는 그의 속에서 운행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였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다. 그때도 역시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왔다. 바울은 그가 받은 종교적인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극도로 열심을 내었다. 그는 강한 의지와 큰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고 재능과 용기도 있었다. 그는 이러한 자질을 갖고 유대 종교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입지나 하나님의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러한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나 하나님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그 자신에 의한 봉사였다. 그 당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용기와 재능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서 사셨고 그와 하나님이 결합되었다. 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의 본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느낌이 그의 느낌이 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의 관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모든 것, 곧 그의 내용이 되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 입지를 드렸을 때, 즉 그와 하나님이 함께 교통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그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느낌을 주셨다. 그의 봉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통과하시게 함으로써 산출된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다만 일이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흘러나오심, 곧 하나님의 생명의 흘러넘침이었다.

봉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열정과 결심과 역량으로 해낼 수 없으며, 또한 단순

히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따라서 해낼 수도 없다.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우리의 봉사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봉사의 근원은 하나님과 영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이어야 하며,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운행하고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 봉사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의한 봉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접촉함이 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봉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봉사를 하기 위해 내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접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교통함이 없이 다만 열정과 흥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운행하심으로써 유발된 것이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영께서 그들 속에서 입지를 얻고 운행하고 동기를 부여하심으로써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타오르는 불과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친구와 친척들에게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상황은 선풍기와 같다. 선풍기는 전기와 접촉을 갖는 즉시 전기의 내적인 추진력에 의해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종류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거나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만 체험을 갖고 그것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하우(knowhow)’에 달려 있지 않다. 당신은 어제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어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했다. 그러나 오늘도 당신은 말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수행된다.

어떤 이들은 자주 나에게, “리 형제님, 우리에게 봉사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그 비결을 알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한 가지 비결,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무언가를 오랫동안 해 왔으므로, 그 일에 있어서 베테랑, 곧 경험 많은 전문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선하게 접촉할 것을 요구한다. 선풍기는 이 년 동안 계속 돌아갔으므로 ‘베테랑’, 곧 ‘경험 많은 전문가’가 되어 더 이상 전기를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갔든지 반드시 전기와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첫날에 그것이 돌 때 전기를 접촉했듯이 마지막 날에 돌 때도 여전히 전기를 접촉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 왔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바울이 오늘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접촉해야 할 것이다. 그는 노련한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더 이상 접촉하거나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사실이 이러하다면 그가 행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일이 될 것이고, 그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봉사와 일은 일종의 성취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생명을 흘려 보내는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거나 일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의 행하는 일에서 표현되고 흘러나오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의 봉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봉사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흥분이나 사상이나 의견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입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봉사의 근원이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근원이다.

초대 교회 시대 때 안디옥 교회에 신언자와 교사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통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그들 중 둘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하였다. 이 다섯 사람들은 토론을 위한 집회를 열거나 생각을 사용하여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두 사람을 내보낸 것이 아니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고, 그분께서 그들 안에서 입지를 가지시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주님은 그들을 관통하시고 그들 안에서 운행하시으로써, 결국 그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보내셨던 것이다.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그분을 의지했고 그분을 모시고 갔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일을 만날 때 그들이 느끼고 얻은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었다.

우리의 일이 사업의 성취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흘러넘침과 해방을 위한 것인가? 만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흘러넘침과 해방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정과 사상과 감정과 결정을 거절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을 양망하며 그분과 교통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보좌와 권위를 차지하시게 하고, 우리를 점유하시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점유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쉽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분 자신을 쉽게 우리에게서 흘러 보내실 것이다. 교회들 안의 장로 형제들에게 특별히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담과 위임을 받지 못한다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들의 봉사는 하나님을 거의 흘러 보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장로 형제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과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길은 이것이다. 먼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그분께서 당신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게 하고, 그 각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 첫째의 위치를 드리라.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첫째가 되게 하지 말고, 그분께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시게 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부담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그분의 부담을 주신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입지와 기회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쉽게 운행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위임과 부담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런 종류의 부담에 의해 당신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동기를 주심으로써 나온 봉사가 된다. 그리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흘러 보내고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영과 영 안에서의 봉사, 158-168쪽)*